

August 2020

ISSN 2733-5860

08
GUNPO
YOU 군포시

VOL. **391**

군포
시
GUNPO MONTHLY MAGAZINE



군포 초막골생태공원

CONTENTS

August 2020
VOL. 391

함께 ON 군포

군포오감	04
in & 人	08

가치 ON 군포

기획특집	10
헬로우 군포	14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 www.facebook.com/gunpocity
- blog.naver.com/o2gunpo
- www.instagram.com/gunpocity
- www.twitter.com/gunpocity
- www.youtube.com/user/gunpocity
- [https://pf.kakao.com/_eD\\$Sxb](https://pf.kakao.com/_eD$Sxb)



군포소식

발행	2020년 8월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군포시청 홍보기획과
홈페이지	www.gunpo.go.kr
디자인인쇄	경인M&B

정기구독 신청(무료)

☎ 031-390-0062

✉ lsky@koreakr

※ 구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 ON 군포

공감+공간	16
이야기가 있는 명화	18
핫 트렌드	20

행복 ON 군포

보건 복지 생활정보	22
희망소식	23
슬기로운 군포생활	24
군포소식	26
의정소식	30

참여 ON 군포

행복소식	32
독자참여	34
문화 캘린더	35



어떤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 토머스 에디슨

“문화路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도시, 군포”

군포시, 법정 문화도시 추진한다



시는 시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올해 내년도 예비도시를 지정 받기 위한 신청서를 낸 상태다. 문화도시 사업은 정부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 문화 균형 발전을 시도하기 위한 중장기 문화 프로젝트다. 시는 장기적으로 법정 문화도시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로 군포를 재설계하여 문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글. 편집자



군포문화도시 어떻게 추진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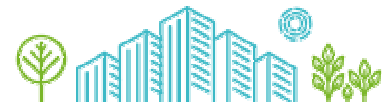
시로 승격된지 30년이 갓 넘은 군포시는 예로부터 경기 서남부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으며 현재도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길 위의 도시다. 기존 전통산업의 쇠퇴에 따른 공단지역과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화, 기존 도심과 신도심 간의 문화적, 경제적 부조화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재된 사람과 마을의 자원들을 문화로 연결하여 서로 소통하고 창의적인 흐름을 통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도시의 정체성 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써 많은 도시가 문화도시에 도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시 올해 본도시로, 오산이 예비도시로 지정받았다. 시가 제출한 신청서도 하반기에 서류, 현장심사 등 전체 평가를 거쳐 연말쯤 예비도시 지정여부를 확정 짓게 된다.

문화도시 사업은 사람, 공간, 문화자원 등의 영역으로 분리된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 영역인 휴먼웨어 사업이다. 군포시는 민선7기 시정방향으로 소통과 협치, 참여와 화합을 내세우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 아말로 시의 핵심철학과 가장 적합하고 신도시 이후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를 문화로 재생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가치는 크게 4가지다. 사람과 마을의 고유성을 발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시, 마을의 균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살아나는 도시, 창의적인 문화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 시민의 문화적 역량이 도시브랜드로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다. 이런 전략들이 실현되면 군포만의 고유성을 발견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포문화도시 추진방향



비전 문화로(路), 사람과 마을을 잇는 도시, 군포

방향

가치

고유성의 발견	공동체성 회복	문화민주주의
사람과 마을이 갖는 고유성과 가치의 발견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시민의 배려와 협력	선순환이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전략

영역	사람	마을	활동	도시문화
핵심 전략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균등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창의적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문화적 역량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문화 휴먼웨어, 시민거버넌스 실현

시는 문화도시 조성의 전 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2020년 7월 문화도시 시민 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그룹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 기획단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후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민리더도 양성해, 문화도시의 기본 조직체계인 시민협의체 및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환류하는 아카이브를 추진하여 문화도시 조성 과 관련한 각종 회의와 세미나 자료, 현장 활동 기록 등 모든 진행 상황을 문서와 사진, 동영상에 담을 예정이다. 이어 자료들을 분야별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문화도시 추진상황을 담은 군포문화도시 백서를 해마다 발간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문화도시 조성 추진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피드백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문화도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군포 문화 자원의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도시 시민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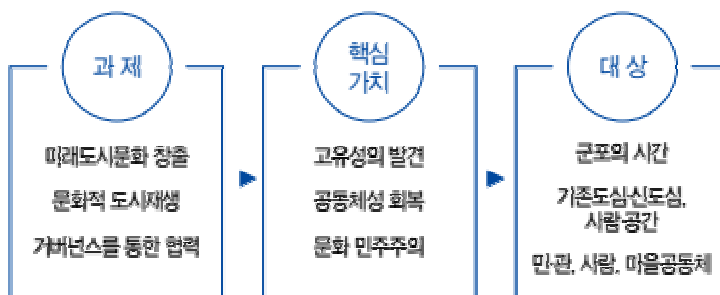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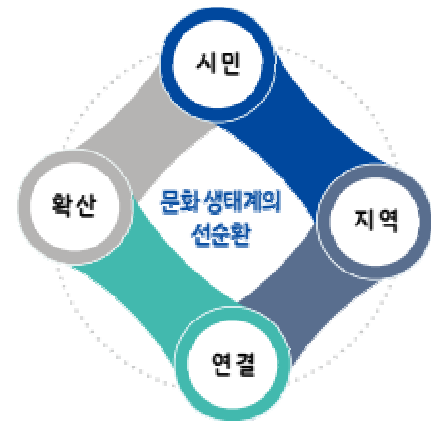
군포문화도시 포럼



시민, 지역, 연결 - 도시문화 창조

군포 문화도시는 시민, 지역, 연결, 확산(도시문화 창조)의 4개 영역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세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래 도시문화 창출, 문화적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과 생태·문화 환경의 창의적 활용으로 새로운 군포 100년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여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향후 군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2월에 정식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문화도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5년 동안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100억원의 시비가 더해진 총 200억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푸드 카빙으로 희망을 선물하다 꿈을 조각하는 미소천사 성하윤 학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한 당찬 소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야초 4년에 재학 중인 성하윤 학생이 그 주인공으로 11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2020 대한민국 국제요리대회 & 제과경연대회'에 최연소로 참여, '푸드 카빙 라이브 경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했다.

글/사진. 노호성

푸드 카빙과의 우연한 인연

'푸드 카빙(Food carving)'이란 식품 및 음식을 돋보이고 화려하게 하는 장식 기술로써 과일이나 야채 등의 음식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완성된 요리와 함께 접시에 담아내는 전문적인 분야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을 요하며, 오랜 시간 경험을 익혀온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분야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2020 대한민국 국제요리대회&제과경연대회'에 최연소 참가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금상을 거머쥔 자랑스러운 군포시민이 있어 화제다. 바로 대야초 4년에 재학 중인 성하윤(11) 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하윤 양(이하 하윤 양)을 만난 건 지난 7월로, 하윤 양의 재능을 발견한 스승 곽명숙(58) 명장이 운영 중인 디저트 카페 '데일리프루츠'에서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저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하윤 양과 어머니 박성은(39)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이어 하윤 양은 직접 만든 자신보다 커다란 수박을 수줍게 내보였는데,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수준급의 작품임에 틀림없었다.

하윤 양이 푸드 카빙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청소년수련관 요리수업에서 곽명숙 명장을 만났고, 하윤 양의 소질을 한눈에 알아본 곽 명장은 어머니인 박성은 씨에게 푸드 카빙을 가르쳐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성하윤 학생과
어머니 박성은 씨.



푸드 카빙 체험 10일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

하윤 양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국제대회인 '2020 대한민국 국제요리대회&제과경연대회'에서 최연소 참가자라는 부분을 넘어 '푸드 카빙 라이브 경연 대회'에서 전문가 수준의 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당당히 금상까지 차지한 실력자라는 것이다. 이에 객명장은 "우리 하윤이는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해 상상 이상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며 "또 성인들도 갖추기 어려운 끈기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하윤 양이 푸드 카빙을 체험한 기간은 불과 10일에 불과하다. 보통 2~3년 이상의 전문가들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놀라운 결과임에 틀림없다. 특히나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한창 부모에 대한 의지가 클 나이인 작은 소녀가,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서본 가장 커다란 무대 위에서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작품을 만들고 몰두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하윤 양은 "푸드 카빙이라는 종목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터라 무대에 오르기 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 응원에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막상 올라가 만들어 보니 재밌었어요."라며 환한 미소로 대답한다. 실제 경기는 2시간 3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에 맞게 참가자들은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대에 임한다. 하지만 하윤 양은 1시간 20분 만에 모든 작품을 마쳤다. 함께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보다 1시간이나 앞서 작품을 마친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객명장의 설명을 들으니 하윤 양의 대답함이 대견하게 느껴진다.



객명숙 명장과 푸드카빙작품을 만드는 성하윤 학생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도전하면 이룰 수 있어요"

처음 푸드 카빙을 접한 하윤 양에게 위험하다며 만류하던 아버지도 지금은 주말 이른 아침부터 과일가게로 수박을 사러 갈 만큼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실제로 '샤도 나이프' 등과 같은 전문 도구가 필요한데,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과 나누길 좋아하던 하윤 양에게는 꽤나 훌륭한 취미가 된 것은 분명하다. 평소 하윤 양의 부모들은 하윤 양의 미래를 위해 특화된 분야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관심분야를 찾는 데에 더욱 집중해 왔다. 덕분에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편 하윤 양은 "주변 친구들의 경우 무언가 시작하기 전 두려움 때문에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응원을 전하고 싶어요."라며 의연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 하윤 양은 과일을 이용해 꽃과 집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 유명한 에이미 등과 같은 인기 캐릭터까지 똑딱 만들 정도다. 이런 하윤 양의 미래 꿈은 배우다.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 낸 큰 결과를 보니 그 꿈도 분명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늘 함께 응원을 보낸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요즘이다. 따라서 작은 거인 하윤 양이 만들어가는 기적을 함께 응원하며, 우리 스스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현재 하윤 양은 객명장이 준비 중인 '유튜브 채널'에 함께 참여하는 등 실력을 쌓으며, 내일을 위한 행복을 조각해가고 있다.



태극기와 함께한 8·15 광복절 다시 기억하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과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찾아온 터라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지친 우리 시민들이 엄혹한 시절의 독립운동가들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7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글. 편집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75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것과, 엄연한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매년 8월 15일을 4대 국경일 중 하나인 광복절로 지정했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잃어버렸던 국권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국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진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한숨 섞인 걱정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의 마음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운동의 아이콘 태극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은 국가(國歌)인 애국가와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비롯해 국기(國旗) 태극기가 있다. 이중 태극기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2년 처음 등장했으며,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는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조선 대표로 참여했던 정치외교가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이 이응준(李應駿, 1832년~미상)에게 국기 제작을 임명했고 이에 태극무늬와 사괘로 국기를 만들었다는 설이다. 당시 청나라 특사가 조선은 청의 속국이기 때문에 청나라 국기인 황룡기와 비슷한 청운룡기를 게양할 것을 강요했으나 김홍집은 이를 거부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는 1882년 급진 개화 운동을 펼친 정치가 박영효(朴泳孝 1861~1939)가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올 때 고종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선상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응준의 창안, 박영효의 제정, 조선 정부 반포라는 단계로 전개·확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전해진다.

당시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조선 국기'로 불렸으며, 태극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1919년 3·1 운동 때부터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키 위해 조선의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국민들은 일본 경찰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태극기를 들고 모이라'는 말을 전파했고, 이때를 태극기라는 이름이 전해진 시초로 보고 있다.

태극기에 담긴 뜻과 변천사

태극기는 하얀 바탕 가운데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 사괘(四卦)가 네 모서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흰색 바탕은 순수함과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또 가운데 태극 문양은 음(陰:파란색)과 양(陽:빨간색)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했다.

이와 함께 사방 모서리에 위치해 있는 사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처럼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는 태극기는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상징들 중 가장 심오한 경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묵숨 바쳐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나라와 국기인 태극기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그림으로 보는 태극기

1883년, 고종은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사괘를 그려 넣은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자, 독립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사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니(O.N.Denny) 태극기, 太極旗

이 태극기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고종(재위: 1863~1907년)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Owen N. Denny, 1838~1900)가 1890년 5월 청의 미움을 받아 파면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것으로, 일명 '데니 태극기'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추정된다.



출처 국립박물관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광순 의병장은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불원복(不遠復)'을 태극기에 새기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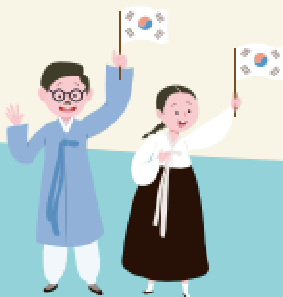
출처 문화재청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태극기

'피로 새긴 대한독립(大韓獨立)' 1909년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단지동맹을 맺고, 왼손 약지를 끊어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大韓獨立)'을 새겼다.



출처 안중근의사 기념관





출처 독립기념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굳세게 싸우자!” 한국광복군 제3지대 2구대에서 활동하던 문웅명(본명 문수열)이 다른 부대로 옮겨가게 되자 동료 대원들이 독립을 염원하며 서명한 태극기이다.

오늘의 태극기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흰색 바탕에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건곤감리 사괘가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망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아 오늘날의 태극기가 만들어졌다.



군포 보훈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군포시 보훈회관

‘군포시 보훈회관’이 지난 6월 24일 새로운 보금자리(산본천로 111)를 마련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사무실 외에 민방위교육장과 미디어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돼,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복합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80여㎡ 규모의 군포시 보훈회관에는, 광복회 군포시지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군포시 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군포시지회, 군포시 재향군인회 등 관내 10개 보훈단체들과 민방위교육장이 입주했으며, 오는 10월 군포시 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훈가족에게는 다양한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리하게!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알고 계시나요? 2013년 설립 후 7년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코로나19로 외출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며, 달라진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글/사진. 군포시 시민기자 이진아

1년 365일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운송 서비스

버스나 택시,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일이 예베레스트 등반만큼 험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안전에 민감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인데요, 코로나19로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외출은 더욱더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운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강화된 방역과 소독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센터를 방문해, 차량과 소독 시스템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철쭉공원 지하 주차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군포시 로고를 부착한 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되

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포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팀 박성우 팀장이 안내를 도와 센터 운영 현황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전예약과 즉시콜 제도 2가지 방법으로 운영 중입니다. 운전자 24명이 5개 조로 나뉘어, 임산부 전용 차량 2대,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차 23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차량들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내부는 많이 다른데요, 한 번 살펴보시죠.”

안내에 따라 차량들을 살펴봤습니다. 소독제 비치는 기본이고, 실내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임산부 전용 차량은 경기도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인데요, 아기와 함께 탈 수 있도록 카시트를 설치했고, 출산 후 6개



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장차 내부도 살펴봤습니다. 휠체어가 오르기 위한 자동 발판에 전용 안전벨트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1년 365일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용객 대다수가 코로나19 취약자이고, 목적지가 대부분 병원이기 때문에 방역과 소독에도 매우 철저했는데요, 전 직원 상시 체온 체크는 기본이고, 운전원의 경우 마스크에 실리콘 장갑까지 착용 후 근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km 기준 1,200원이라는 저렴한 기본요금에 친절함 서비스까지, 광성우 팀장은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을 것만 같지만, 외외로 불만사항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는데, 특히 전화 연결이나 배차 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이용대상

구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용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보호자 2명 탑승가능)	노인장기요양 전제 등급 (보호자 2명 탑승 가능)	모자보건법 제2조에 의한 임신부 (보호자 2명 탑승 가능)
신분 확인	복지카드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류(출산 후 6개월)

이용방법

- 이용 전 신청서 작성 및 접수(첫 이용시에만 해당, 신청서 등 제출서류)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용 고객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이용신청서 이메일 접수 : good@gunpouc.or.kr
- 고객 등록 완료 후 콜센터 ☎ 1899-4428 사전 예약 전화 신청
- 평일 2일전(공휴일 3일전 사전예약)
- 군포시민 : 2일전 예약 / 타 지역 시민 : 1일 전 예약
- 당일콜의 경우 당일 2시간 전 사전 예약
- 야간콜의 경우(22시~06시) 예약
- 신청일 출발지 승차 후 목적지 하차
※ 신청서는 군포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시설안내 : 군포도시공사



그 첫 번째는 즉각적인 전화 상담, 두 번째는 즉시 콜 증설 운영, 세 번째는 GPS 시스템 도입, 네 번째는 비상용 차량 도입 등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어 주는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① Information

군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군포시 번영로 407
☎ 1899-4428
🌐 www.gunpouc.or.kr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군포 당정근린공원과 골프장 둘레길

여름의 정점에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당정근린공원'을 찾았다. 빼곡한 빌딩숲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힐링 포인트로도 제격이지만, 작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시민들이라면 한번쯤 가봤을 만한 당정근린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친구가 되어주길 마다하지 않는다.

글/사진. 노호성



평화의 소녀상을 찾다

당정역 정면과 마주하고 있는 당정근린공원 입구에 들어서 가장 먼저 시선이 멈춘 곳은 '평화의 소녀상'이다. 가만히 정면을 응시한 채 오가는 시민들을 말없이 바라보는 소녀상의 모습은 그저 외연하기만 하다. 이 소녀상은 지난 2016년 8월 9일 국내 30번째로 건립된 소녀상으로 군포시가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취지로 건립했다.

한편 이 작품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만든 김윤성·김서경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제작 과정을 주관했다. 그렇게 4년여가 지난 오늘, 소녀는 풀지 못한 역사의 굴레에 항의하듯 꼭 쥔 주먹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14일이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나 떠날 수 있는 도심 속 여행지

소녀상 옆으로는 나란히 서있는 인공폭포가 눈길을 끄는데,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장소다. 요즘같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시기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인기가 좋을 법하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는 젊은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농구를 즐기는 모습이 보인다. 덩달아 기운이 솟는다. 다시 시작점을 빠져나와 공원 전체를 둘러보니 길게 열려있는 광장이 눈에 띄고 색색의 여름 꽃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햇살을 만끽한다. 공원 내 곳곳에는 소규모의 공연장과 여름철 가족나들이객들을 위한 놀이터 겸 물놀이장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까지는 운영이 보류 중이다. 산책을 즐기던 한 어른신이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봄이면 파릇한 새싹들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또 겨울이면 눈꽃이 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4계절 언제나 열린 공간이다.

그렇게 당정근린공원 여기저기를 걷다보니 군포의 명소로 알려진 '골프장 둘레길'과 연결된 신기천이 수줍게 반긴다. 총 4.6km 코스로 구성된 골프장 둘레길은 군포시가 도심 속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만남의 광장부터 시민 갤러리, 농소화길, 대나무 숲, 신기천 꽃길까지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인 둘레길 갤러리는 외할머니에게 들었을 법한 군포의 옛이야기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다양한 작품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여기에 사뭇 사뭇 부담 없이 걷기 좋은 부드러운 흙길은 여름날 야생화들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고, 둘레길 중간 중간에는 언제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운동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이야기가 있는 영화

시대를 그린 화가 김홍도의 〈노중풍경〉



조선시대 화가 단원(壇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추정)는 서민들의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시대를 그려낸 공감의 아이콘이다. 이런 김홍도는 다양한 화목(畵目)의 그림을 제작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였는데, 그중 서민의 삶과 희노애락을 사실적 묘사로 그려낸 풍속화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글. 강정혜 자유기고가

조선시대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에 대한 기억

단원 김홍도가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화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서민들의 일상을 익살스럽고 생생하게 묘사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미술계에서는 천재화가 김홍도를 풍속화가라는 틀 안에 가두는 오류를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 있는 지적에는 실제 김홍도의 폭넓은 미술적 재능이 뒷받침 되고 있다. 실제 그는 산수화를 비롯하여 종교와 관련 있는 도석화, 그리고 화조화 및 인물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홍도의 생애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다른 동시대 화가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분명하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의 생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천재화가로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스승에서 소울메이트로

김홍도의 생애와 관련해 명확한 자료를 찾기 쉽지는 않으나 그의 나이 7~8세 때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강세황(姜世晃)에게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을 통해 어린 시절을 안산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강세황은 당대 문인화가이자 감식가로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로 시작해 직장 상하 관계로 또 이후에는 예술적 동지로서 인연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홍도는 강세황의 추천으로 20대라는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도화서¹⁾의 화원이 되어 명

성을 떨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9세였던 1773년에는 영조의 어진(英祖 御眞)과 왕세손(뒤의 정조)의 초상을 그렸다. 그리고 이듬해 감목관²⁾의 직책을 받아 사포서에서 근무했으며, 1781년(정조 5)에는 정조의 어진 익선관본을 그릴 때 한중유(韓宗裕) 및 신한평(申漢平) 등과 함께 동참화사로 활약했다. 그가 자신의 호(號)를 단원(檀園)이라 칭한 것도 이 무렵으로, 명나라의 문인화가 이유방(李流芳)의 호를 따다는 설과 또 경기도 안산 성포리 뒷산 노적봉기슭에서 스승 강세황이 여주 이씨 문중 사람들과 시회를 했던 박달나무 숲이 '단원'이었기 때문이라는 설 등 분분하다. 한편 김홍도가 처음으로 지은 호는 서호(西湖)로 안산에 살았던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의 시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인간의 심리를 담아낸 조선시대 스냅사진 '노중풍경'

김홍도는 단순히 화가로서 조선의 미술적 가능성을 넓힌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제도에 갇혀 있던 시민의 삶을 주제로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냈는데, 그가 그려낸 산수화에서마저도 인간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이는 그가 추구했던 삶의 주체가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같이 단원 김홍도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일상을 그저 편안하고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절제된 묘사와 채색으로 마무리했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하나의 스냅사진처럼 그려냈다. '단원풍속도첩' 중 '노중풍경'도 그중 하나다.

화폭에 담긴 인물들의 심리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이 '노중풍경'은 길을 가던 두 일행이 부딪힌 모습을 묘사했는데, 나귀를 탄 선비의 시선과 그 시선을 느낀 아낙의 심리묘사가 상세하게 옮겨져 있다. 한편 이 둘의 묘한 시선을 모르는 중년의 가장은 아이와 닭이 든 집을 땀 채 걸음을 재촉한다. 이는 김홍도가 나귀를 타고 다니며 경험한 조선의 풍정을 8폭 병풍에 담은 '행려풍속도병(1778)'과도 유사한데, 화첩의 그림들에서는 배경이 없어 인물들의 심리와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당시에 찾아보기 드문 소재다.

1) 도화서(圖畵署)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2) 감목관(監牧官)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 외관직

코로나19 팬데믹이 바꾼 여행 트렌드

플렉스에서 안전과 힐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행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여행 트렌드가 과시욕이 부각된 '플렉스(flex)'형이 주류였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안전과 힐링'이 강조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글. 김성태

'안전의식'이 바꾼 여행 트렌드 'S.A.F.E.T.Y'

지난 6월 한국관광공사가 분석·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관광행동 변화'라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전(S.A.F.E.T.Y)'을 최우선 키워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자료는 SKT의 T맵 교통 데이터 및 KT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국내 발생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총 21주간 국내 관광객의 관광 이동 패턴 및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인 관광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집 근처의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된 관광을 즐기는 이른바 '생활 관광' 중심으로 관광활동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을 리드하고 있는 키워드 'S.A.F.E.T.Y(안전)'는 근거리(Short distance), 야외활동(Activity), 가족단위(Family), 자연친화(Eco-area), 인기 관광지(Tourist site), 관광 수요회복 조짐(Yet..)으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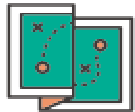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SAFETY
FIRST

'S.A.F.E.T.Y' 관광생활

Short distance



수도권-대도시 주변
'근거리' 관광수요 증가

Activity



아웃도어 '레저-캠핑'
수요 증가

Family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관광 확대

Eco area



코로나를 피해 '청정지역'
관광수요 증가

Tourist site



여전히 '인기관광지'
중심 관광수요 변동

Yet...



관광 교육 여전히 존재
관광 '수요' 회복은 아직

해외에서 국내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외여행이 주를 이루던 지난해 상반기와는 다르게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 확대도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여행전문 기업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언택트(Untact) 개념이 확산되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한 숙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해외여행 상품은 75% 감소한 반면 국내 숙박 예약 판매량은 10% 증가한 것(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여행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숙소별 선호도 및 유형을 보면 펜션이 43.8%로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이어 또 한 번 1위를 차지했고, 호텔이 33.5%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해외여행 대신 프리미엄 호텔을 선호하는 호캉스족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별 선호도를 보면 경기도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 44%, 충청 37%, 제주 28% 순으로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가를 포기한 자'를 뜻하는 일명 '휴포자'들도 늘고 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줄어든 수입에 대한 걱정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최근 취업포털기업 잡코리아에서 직장

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면,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9.3%에 불과하지만 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31.9%에 달했다 이는, 3명 중 1명이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얘기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왔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시죠? 여행지에선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라는 거!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는 8월 역시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파를 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지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회사와 사업장 등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휴가 기간을 넉넉히 계획해 직원들이 월별 순차적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나 장소에 이동인구가 동시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기본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한 요소로써 휴가지 주변의 휴게실, 편의점, 식당, 화장실 등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 2m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플렉스(Flex)

사전적으로는 '구부리다', '몸을 물다'라는 뜻이지만, 198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부나 귀중품을 뽐내는 모습에서 유래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나 귀중품을'과시하다, 뽐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Q&A로 알아보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최근 들어 유치원 등에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식품, 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증상과 예방, 치료법 등을 Q&A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무엇인가요?

A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하여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증상은 어떤가요?

A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의 증상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상은 5~7일간 지속된 후 대체로 호전됩니다.

그러나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이 나타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한 전파경로입니다.

대부분의 발생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하여 집단 발생은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은 철저히 준수하고 육류 제품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야채류는 깨끗한 물로 잘 씻어 섭취해야 합니다.



외출후 깨끗하게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Q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A 수분 공급 및 전해질 교정을 통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용혈성요독 증후군 유발 위험으로 항생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

군포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일자리 정보!

기업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디오스플랜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 ㉠ 고산로148번길 17, 군포 II밸리 A동2207호 (당정동)	경리 사무원(건설) / 1명	㉠ 08:30~17:30 ㉡ 연봉 2,200만원 이상
이큐맥스제약 (주) 치약, 가글, 치솔제조등 구강전문제품 제조업 ㉠ 공단로140번길 52, 군포 에이스하이테크 14층 10호 (당정동)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 1명	㉠ 09:00~18:00 ㉡ 연봉 3,000만원 이상
(주)두비산업 조미식품제조, 도·소매 ㉠ 산본로77번안길 6 (당정동)	온라인 판매원 / 1명	㉠ 08:30~17:30 ㉡ 연봉 3,000만원 이상
(주)코리아크린시스템 친환경제품 제조 및 유통 ㉠ 옹호1로 4, 3층 302호 (당동)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2명	㉠ 09:00~18:00 ㉡ 연봉 2,400~2,600만원 이상
디자인마창 인쇄, 출판, 기획, 디자인 ㉠ 변영로557번길 34 (금정동)	경리 사무원 (일반사업체) / 1명	㉠ 09:30~18:30 ㉡ 연봉 2,200만원 이상
(주)피엔에스 기계안전인증평가, 위험성평가 ㉠ 산본로324번길 8, 동영센트럴타워 502호 (금정동)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 1명	㉠ 09:00~18:00 ㉡ 시급 13,000원 이상
부광전자주식회사 와이어 하네스 가공 및 수위센서 제조 ㉠ 당정로 14, 14 (당정동)	경리 사무원(제조) / 1명	㉠ 09:00~18:00 ㉡ 연봉 2,400만원 이상
동화관리시스템 건물종합관리용역 ㉠ 권선구 금곡로 235 (금곡동) (서수원 홈플러스 옆)	빌딩 전기관리원 / 1명	㉠ 격일근무 ㉡ 월급 230만원 이상
경동광명로지스틱스(주) 창고및 화물운송 서비스 ㉠ 변영로 82 (부곡동)	창고 관리원 (자재 검수원 포함) / 3명	㉠ 주간 : 06:00~15:00 야간 : 15:00~24:00 ㉡ 월급 235만원 이상~246만원 이하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 및 재활 ㉠ 청백리길 18	특수교육 교사 / 1명	㉠ 09:00~18:00 ㉡ 월급 180만원 이상~250만원 이하

* 2020년 7월 20일 기준 자료로 구인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정보는 일자리센터(031-390-03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KI-Pass: Korea Internet-Pass)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격 도입됐다. 이는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의 해결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 시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글. 편집실

이용자

1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 추후 네이버 외 PASS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QR코드는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 시 15초만 효력 유지

시설 관리자

1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등록, 직원 추가 등록 가능



2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태블릿 PC 등)로 가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용자 QR 인식절차

☎ 문의전화 1339
감염관리본부 콜센터



(QR코드 발급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난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주요 적용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지자체 행정명령시설(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 되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A.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의 해결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 시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Q. 주요 적용대상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A.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지자체 행정명령시설(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Q. 이용방법이 궁금합니다.

A.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Q. QR코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로그인 후 처음 뜨는 화면 상단에 '내 정보 아이콘'을 누르고 QR코드 체크인을 클릭하면 개인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QR 코드를 시설에 입장할 때 인식해주면 됩니다. 단 본인 QR 코드는 15초마다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A.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군포소식

군포시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01 2020 경기도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모집(선착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전문컨설팅 1,250개사 / 재기장려금 650개사(150만원)
/ 기술훈련비 150개(100만원 내)
※ 지원금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접 수 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센터 ☎ 031-509-0256

03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조정에 따른 군포시도서관 부분개관 운영 안내

대 상 군포시도서관 6개관, 작은도서관 39개소

이용범위 도서대출/반납만 가능 (※ 자료실내 체류불가)

자료실명	평일	주말
종합자료실	09:00~21:00	09:00~18:00
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8:00

- ※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노트북실, 누리천문대, 북카페(산본)은 미개방
- ※ 작은도서관 39개소는 자체 운영시간에 따라 운영
- ※ 휴관일 : 중앙(금요일), 어린이, 산본, 당동, 부곡(월요일)

열람실, 북카페(산본), 노트북실, 누리천문대 등의 시설물 개방과 자원 봉사,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예정(후후 별도 공지)

제공서비스 - 이동도서관 운영
- 상호대차서비스
- 장애인방문대출, 순회문고

유의사항 - 각 도서관 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 상시체크 및 손소독 필수
- 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 불가

02 수돗물 유충 관련 대응 상황 안내

군포시는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함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공동 주택 저수조 등을 조사한 결과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돗물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해 정수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실시간 수질 감시 강화 및 위생상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여름철(6~8월)에는 수도꼭지, 화장실 배수구·세면대, 싱크대 배수구, 욕조 등에서 나방파리, 집파리 등에 의해 유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뜨거운 물이나 베이킹소다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여부는 수도필터나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 가라 앉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충이 발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수도과로 문의 바랍니다.

문 의 군포시 수도과 ☎ 031-390-3297

04 보호복 활동 홍보



05 '〈코로나19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기 간 2020. 7. 13. ~ 10. 31.(4개월간)
11:00~영업 종료 시까지

대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내 용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절차 사전상담 ▶ 접수 ▶ 협의조정 ▶ 통보 ▶ 옥외영업
접수 시 신분증 지참 및 옥외영업장 사진 제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문 의 위생과 ☎ 031-390-0534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 ① 옥외영업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지상 공지에 한함. [최대 영업장 면적의 100%까지 허용(도로, 인도 등의 공공공간 제외)]
- ②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 및 의자 수 내에서 설치·운영하되 반드시 실내·외 식탁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실내탁자 10개 ▶ 변경: 실내탁자 7개, 실외 탁자 3개)
- ③ 옥내 시설물을 실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만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벽, 비람막이 등 고정 시설물은 설치 금지)
- ④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실내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⑤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해야하며, 옥외영업 시 발생한 폐기물 정리 등 청결 관리 해야합니다.
- ⑥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흡연, 소음, 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 ⑦ 옥외 공간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용 하여야 합니다.

06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찾기〉 안내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법적 권리 및 혜택 안내가 미흡하여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포함하여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찾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거주 가능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유기기간(4년 또는 8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 귀책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임대료 인상비율 법적 제한

임대료 인상폭은 현재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 할 수 없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불편 경감(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및 상세안내(<http://www.khug.or.kr>)

경기도 누리집 구축

접속경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 민간임대주택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전화/방문상담: 경기도 콜센터 ☎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군포소식

군포시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0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 안내

☞ 이용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 이외의 시설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범시민적 코로나 확산방지에 앞장서고 향후 역학조사의 신속·응이성 확보로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시 분청 및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및 산하 기관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설치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 추진계획

운영기간 2020. 7. 23. ~ 12. 31.(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검토)

대 상 군포시 청사 및 산하기관 44개소

이용방법 관공서 출입시에 QR 코드 입장권 발급후 입장

※ 출입구(핸드폰 사진, 카카오톡 스캐너 QR코드 촬영 ▶ 전화번호, 성명 기입 ▶ 문자 수신 ▶ 입장권 발급 후 입장)



군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7. 23.부터 QR(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오니 군포시 소속 청사 및 산하기관 출입시 전자인증 입장권 발급에 많은 이해와 협조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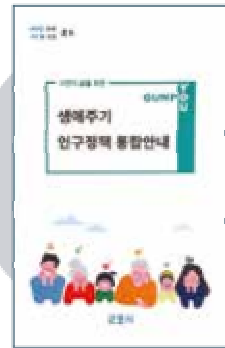
문 의 ☎ 재난안전과 031-390-0443

08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아동·청소년 / 청년·여성

군포시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정보를 한 권으로 볼 있는 '생애주기 인구정책 통합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군포소식〉은 꼭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며, 이달은 아동·청소년/청년·여성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간된 책자는 각 동 주민센터와 시청 홍보기획과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 분야별정보 ▶ 복지 ▶ 인구정책에도 게재돼 있습니다.



문의 군포시청 홍보기획과 기획인구팀 ☎ 031-390-0052

아동·청소년 주요 생애주기 인구정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6세 ~ 초등학교 6학년 중

(의료수급자, 치상위계층, 장애아동, 구강보건사업대상자)

대상치아 충치가 없는 영구치 대구치

시 술 비 무료

접수방법 전화예약 또는 방문예약

문의 산본보건지소 ☎ 031-390-8927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대상 관내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

지원내용

- 정신건강선별검사 및 전문가 상담, 학부모 및 교사 교육
- 등록·사례 관리를 통한 치료연계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정서행동관련 마음건강 프로그램 제공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중독 예방 교육

신청방법 개별 및 기관 신청

문의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461-1771

청년·여성 주요 생애주기 인구정책

청년날개(면접정장) 사업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거주 청년 구직자(만 18세~만 39세)

※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포함

대여기준

- 대여기간(1회) : 3박 4일(주말 대여 가능)

- 대여횟수(1인당) : 월 5회, 연간 10회

- 대여물품(남자) : 자켓, 비지, 셔츠, 구두, 벨트, 타이

(여자) :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신청방법 군포시 일자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 일자리정책과 ☎ 031-390-0616

새일센터 구인구직상담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구인·구직 일반상담 및 취업알선

신청방법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문의 군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1-390-4035

의정소식

군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려드려요

☞ 제8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시작



제8대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후반기에 돌입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의장에 성복임 의원, 부의장에 장경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성복임 의원(군포2동·대야동)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모든



소임을 다 하겠다”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헌신적인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간담회, 토론회, 행복나눔봉사단 활동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군포시의회, 사회복지기관 방문 노고 격려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7월 7~8일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휴관이 잇따르면서, 주 이용층이

있던 취약계층의 보호방안, 관리방법 등을 점검하고 재개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늘푸른 노인복지관,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9개소의 복지기관을 방문한 성복임 의장은 시설 이용 시 진행되는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며 복지기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성 의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군포시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찾은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제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트럽힌다”고 밝혔다.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방안 모색' 1차 간담회 가져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포시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신금자, 연구의원 장경민, 이우천, 홍경호)이 7월 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신금자 대표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회의는 (사)로아트 이사장 및 이사들과 군포시 장애인 부모협회 회장, 군포문화재단 직원 및 군포시청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 예술인 지원사업 벤치마킹 및 지원 관련 세미나, 지원 매개자 아카데미 운영 등 연구단체 활동 세부 일정과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신금자 의원은 "발달장애 예술인에 대한 전 생애 지원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 예술인에게 적절한 지원 사업을 찾고 가능성 있는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군포시의회 이길호·김귀근·이우천 의원,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상 수상



군포시의회는 이길호·김귀근·이우천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기도중부권시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각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제13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김귀근 의원은 의정활동

동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고, '경기도중부권시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길호 의원은 의정연구발전분야, 이우천 의원은 행정개선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길호 의원(군포2동·대야동)은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과 의정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천 의원(군포1동·산본1동·금정동)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지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시·수필(자유 주제)

분량 1,100자 이내(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lisky@korea.kr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3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사전 연락 없음.

* 기고 제출 시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됩니다.

* 제출기한은 매월 18일까지입니다.



인생

몰아치는 파도처럼
세월따라 흘러
강물따라 흘러

울렁이는 파도
햇살에 비추며
따스하게 비추는 파도
서서히 고요해지네

하루하루의 태양
눈부신 물결을 가르며
저 멀리 울렁 울렁

물결 속에 비추는 태양
반짝이는 물결 안에
찬란한 우리의 인생



박진영

된장국

식탁 위에 단골 메뉴
모락 모락
어린 시절 익숙한 그 맛

하늬바람 흩어지면
이웃집에서도 구수하게
느껴지던 추억들
하늘가에서 계속 맴돈다.

토담집 안에서
온 가족 모여
아침 일찍 나누는
정겨운 시간



이형철

쓰기 위해서는

유월의 막날, 창이 큰 카페에 앉아 비 내리는 바깥을 응시한다. 종일 하늘은 회고무레하고 빗물은 여러 모양새로 존재를 알린다.

창에는 크기 다른 투명한 점으로, 까치에겐 목을 축일 수 있는 거울로, 어느 외롭고 괴로운 인간에겐 위로의 연주곡으로 비를 느끼는 지금.

창을 통해 비 내리는 바깥을 보지만, 정확하게는 창을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창을 보는 것은 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투명한 유리를 감지하지 않으면서 창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밖을 보기 위해 창을 내어야 하지만 창을 보기 위해서 밖 또한 반드시 필요하긴-싶은, 쓰잘머리 없는 생각.

창은 창으로만 보여질 수 있을까 물음을 떠올리며 꼼꼼히 유리를 훑는다. 그러다 한쪽에서 멈칫, 시선이 머문다.

투명한 점들 사이 벌 한 마리 창에 붙어 있다. 날개를 말리려는지 그저 쉬고 싶은 것인지 미동 없다.

간혹 잠자리가 근처에서 원을 그리고 작은 나방이 옆에 앉았다 날아가도 벌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확성기로도 벌의 숨소리를 잡아내지 못할 것 같은 고요, 정지된 순간.

나는 본다.

창을, 벌의 속을, 벌의 입과 배와 발바닥을, 실보다 가는 촉수들.

그리고 알게 된다.

벌의 속이 창이라는 것을. 창 자체라는 것을. 창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고, 창을 보는 것임을. 그러니까 창을 보기 위해서는, 창을 보는 수밖에 없음을. 쓰기 위해서는 쓰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벌이 두어 번 발을 비빈다.

비가 그치고 벌은 온데간데없다.

자식이 힘이고 보약이다

손자가 보고 싶다는 아빠 전화에 네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였다.

부모님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도착하자 다가와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엄마! 아빠! 왔어요.” 하면서 애를 먼저 데리고 내리면서 “얼른 두 손 모으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려.” 하면서 인사를 시켰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공손히 하더니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왜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 그러고 엄마, 아빠, 그래? 우리 엄마는 여기 있고, 아빠는 집에 있는데?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해야지.”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에 웃음이 뺨 터졌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한테는 당연히 아빠, 엄마이기에 아빠, 엄마라 한 것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어린 아들 입장에서 그게 이상하게 보일 줄이야... 정말 아이들 시선과 생각과 마음은 따라갈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우리 손자 똑똑한 것 좀 보게! 어떻게 그 생각을 다 했을까? 이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 때문에 웃고 사는 거다. 자식이 힘이고, 보약이다. 우리 손자가 최고다!” 하면서 녀석을 번쩍 안아주시는 아빠.

그러자 이번에는 “나는 이서진인데요, 손자가 아니고...” 하는 말에 다시 한 번 크게 웃고 말았다.

뽕뽕 웃음 터트려주는 우리 아들, 최고다!!





숨은그림찾기

그림 안의 일곱 군데 숨은그림과 이달의 수수께끼 정답을 찾아주세요.

숨은그림 칫솔, 달님, 압정, 포크, 촛불, 컵, 골프채

수수께끼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식품, 물 등을 통해 감염된다.
(22페이지 참조)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예 ☐ 아니오 ☐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후 사진을 촬영해 8월 20일까지 이메일(lysky@korea.kr)로 제출해 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개별 공지)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표시 필수
- 대용량 사진 파일 첨부 금지(다용, 한메일은 대용량으로 첨부되므로 이용 금지)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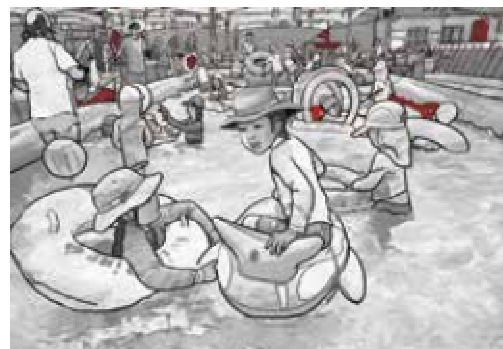
지난 호 정답자

최*라 010-9**4-*67* 이*범 010-7**7-*71* 정*경 010-7**0-*30*
박*훈 010-4**8-*29* 류*아 010-8**6-*49*

지난 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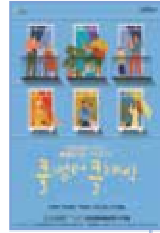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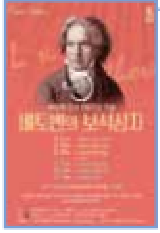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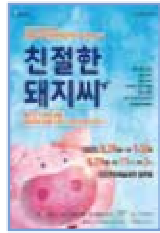
수수께끼 제1순환도로

숨은그림 고래, 아이스크림, 도토리, 커피포트, 뚝단배, 열쇠, 주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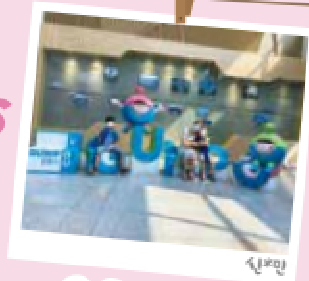
08

CULTURE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뮤지컬 <빨래> 일 시 8. 7(금) 20:00 / 8. 8(토) 14:00, 18:30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20,000원 문 의 031-390-350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브랜치클래식 <베토벤의 보석상자> III. 베토벤과 함께 춤을 일 시 8. 20(목) 11:00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입장료 15,000원 문 의 031-390-3500~1	Rock & Jazz Concert Vol.33 에피톤 프로젝트 일 시 8. 22(토) 19:00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입장료 50,000원 문 의 031-390-3500~1	2020 여름방학 가족 음악회 (Cool Summer Classic) 일 시 8. 22(토) 19:00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20,000원 문 의 031-390-3500~1
23/30	24/31	25	26	27	28	29
		댄스살롱 in 군포 II. 여인의 향기 일 시 8. 25(화) 19:00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입장료 문화가 있는 날 특별가 5,000원 문 의 031-390-3500~1			작은 청극 <친절한 돼지씨> 일 시 8. 28(금) 19:30 8. 29(토) 11:00, 15:00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입장료 10,000원 문 의 031-390-3500~1	

군포소식 제390호

깜짝 이벤트 응모 당첨작



신우민



김보민



박주환



신우민



오보현



이보영



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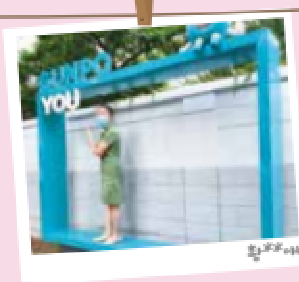
이우민



이우민



유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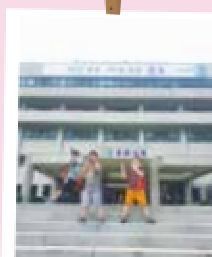
홍보민



권보민



한우민



김보민



이보영



이보영



최우민

